

## 실업, 빈곤과 투표행태\*

김민성\*\* · 이상현\*\*\*

본 연구는 정치경제이론에서 정책결정 과정 도구 가운데 하나인 투표에 관한 연구이다. 투표가 경제적 관점에서 주목 받는 이유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후보자가 경제정책 수립시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들의 편익을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치경제이론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과정에 참여한다는 가정을 두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어떤 유형의 유권자들이 투표과정에서 이탈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992년부터 2008년까지의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거시분석을 한 후 1992년, 1997년, 2002년도에 조사된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미시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분석 결과 투표율은 경기순행적 관계를 가진다. 즉, 경제상황이 좋을 경우 투표율은 증가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 투표율이 하락하는 이탈가설을 지지한다. 둘째, 미시분석 결과 실업상태에 있는 유권자와 빈곤에 처한 유권자들이 투표과정에서 이탈한다. 이러한 결과는 누군가를 내세워 경제적 이익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효용을 빠른 시간에 높일 수 있는 개인적 관심사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정치경제이론모형에 적용시 정치경제 균형의 성격이 100% 투표율을 가정하는 경우와는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중위소득보다 높은 쪽에서 정치경제 균형이 결정될 수 있다.

핵심주제어: 실업, 빈곤, 경기변동, 이탈가설, 투표행태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D72, D78

\* 익명의 논평이 논문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었음을 밝힌다. 간존하는 부족함은 저자들의 몫이다.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전화: (02) 760-0621, E-mail: minseong@skku.edu

\*\*\* 제2저자, 금융경제연구원 미시경제연구실 연구원, 전화: (02) 759-5558, E-mail: stoll80@skku.edu

논문투고일: 2009. 9. 7 수정일: 2010. 2. 20 게재확정일: 2010. 6. 14

## I. 서 론

투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또한 투표는 대표자 선출도구 외에 민주주의적 선거의 본질적 가치와 정당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 동안 투표는 정치학계의 주요한 연구주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누가 투표를 하며’, ‘왜 투표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다(Lee, 2004). 반면 투표는 정치적 관점 외에 경제적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국가의 실업률 감소, 경제성장 또는 지역발전과 같은 공약을 내세우고는 한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추상적인 정치적 이념보다는 경제적 상황의 개선을 약속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후보자는 경제정책 수립시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의 편익을 반영하기에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경제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고는 한다. 따라서 유권자의 정치적 이념 외에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 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경제상황과 투표율에 관한 가설을 정리하고 분석한 연구로는 Rosenstone (1982)이 있다. Rosenstone(1982)은 그간 논의되었던 경제상황과 투표율에 관한 가설을 이탈가설(withdrawal)과 동원가설(mobilization) 그리고 무관가설(no effect)로 정리하였다. 각 가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탈가설은 경제상황이 안 좋을 경우 유권자들이 정치적 과정에서 이탈한다는 것이다. 즉, 경기악화시 투표참여율이 하락한다. 이러한 원인은 유권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재정악화시 정치적인 관심보다는 개인적인 관심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반면 동원가설은 경제상황이 안 좋을 경우 유권자들이 해당 정부를 처벌하기 위하여 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부정적 투표이론(negative voting theory)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부정적 투표이론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현 정부에 두고 정권교체를 위해 투표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관가설은 경제상황과 투표율 간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을 정치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관가설에 따르면 정치적 과정은 경제상황과는 별도로 정치적 상황 및 지지(support)와 같은 정치적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선거구 특성에 관한 연구’(황아란, 1997), ‘지역주의

성격에 관한 연구'(강원택, 2000; 박상훈, 2001; 최영진, 2001; 양창윤, 2001)와 '유권자의 정치적 불만족'(강원택, 2002) 등을 통해 투표참여를 연구하였으나, 경제상황과 투표율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반면 Lee(2004)는 한국의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경제변수와 투표율에 관한 관계를 찾으려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선거자료와 경제지표를 이용하여 경제상황과 투표율 간의 관계를 밝히고 그 근거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가설 중 어떤 가설을 지지하는지 거시와 미시 차원에서 밝히는 것이다. 또한 거시적 상황과 연계하여 경제상황의 변화가 개인수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경제상황과 투표율에 관한 선행 연구를 소개한 후, 제Ⅲ절에서는 거시분석을 통해 경기변동과 투표율 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제Ⅳ절에서는 제Ⅲ절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시분석을 통해 '누가 투표참여를 하지 않으며', '왜 투표하지 않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명한다. 제Ⅴ절에서는 거시분석과 미시분석의 연계를 통해 투표과정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거시적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논의한 후, 마지막으로 제Ⅵ절에서는 결론을 제시하며 위의 결과들이 정치경제이론에서 가지는 의미를 조명한다.

## II. 선행연구

투표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는 연구방법에 따라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로 나뉜다. 이론연구는 수리모형을 이용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분석하는 반면, 실증연구는 통계모형을 이용한다. 또한 실증연구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거시연구와 표본조사 또는 설문지를 이용하는 미시연구로 나뉜다. 거시연구의 경우 주로 경제변수와 투표율 간의 흐름을 파악하는 반면, 미시연구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성향과 투표참여 여부를 연구하였다.

### 1. 이론연구

Feddersen(2004)은 합리적 의사결정접근, 정보의 비대칭성과 기권, 그룹기반 동원과 그룹기반 윤리적 투표자모형 등을 소개하는 개괄연구(survey study)를 하였다. 이 중 경제적으로 접근한 모형은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접근모형으로 유권자들은 투표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대이익과 비용 간의 차이에 의존해 투표참여 결정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 모형을 제시한 연구는 Riker and Ordeshook(1968)이 있으며, Davis *et al.*(1970)과 Ferejohn and Fiorina(1974)에 의해 발전되었다. 의사결정접근모형은 다음과 같다.

$$U_i = P_i B - C_i + D_i, \quad i = 1, 2, \dots, n. \quad (1)$$

여기서  $U_i$ 는 유권자  $i$ 의 효용함수이며  $P_i$ 는 유권자  $i$ 의 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확률을 나타낸다.  $B$ 는 후보자 간 공약의 차이가 주는 이익이며  $B \geq 0$ 이라 가정한다. 만일  $B > 0$ 이면 후보자 간 공약의 차이가 반드시 존재하나  $B = 0$ 이면 무차별하다.<sup>1)</sup>  $C_i$ 는 투표참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정보처리비용 및 소득과 관련한 기회비용 측면으로 해석한다. 비용의 경우 양면성을 가지는데, 우선 정보처리 능력은 소득에 비례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정보처리비용이 적게 든다.<sup>2)</sup> 하지만 기회비용 측면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투표하러 갈 유인은 낮아진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투표참여를 많이 한다는 전통적 이론과 충돌하는 결과를 나타낸다.<sup>3)</sup> 마지막으로  $D_i$ 는 시민적 의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치적 만족감을 나타낸다. 투표참여 의사결정시 합리적인 유권자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한다. 만일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즉  $P_i B + D_i > C_i$ 일 때 유권자  $i$ 는 투표를 하며, 반면  $P_i B + D_i < C_i$ 일 때는 투표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형에서  $P_i$ 는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여  $P_i$ 의 도출에 관한 한계점을 남겼다.<sup>4)</sup> Ferejohn and Fiorina(1974)는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한 후 게임이

1)  $B$ 는 후보자 간 공약 차이의 절대값으로 후보자 간 공약 차이가 발생할 경우  $B > 0$ 이며, 후보자 간 공약이 동일할 경우  $B = 0$ 이다. 만일 후보자 간 공약이 동일할 경우 어느 후보자가 당선이 되던 유권자에게는 무차별하기에 굳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를 선출할 이유가 없어진다.

2) 일반적으로 정보처리 능력은 유권자의 교육수준에 달려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높으며 높은 교육수준의 사람들이 고소득일 확률이 높아 소득과 정보처리 능력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3) 대체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는 임시휴일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휴일에 관계 없이 일을 하는 직종이 늘어남에 따라 기회비용 측면을 많이 고려하게 된다. 특히, 높은 교육수준일수록 전문직에 종사할 확률이 높으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휴일에 관계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표참여에 대한 기회비용 측면을 고려시 전통적 엘리트이론과 현대의 기회비용이론은 상반되는 논의가 된다.

4) 모형에서  $P_i$ 는 투표자가 많아질수록 투표자 개인이 선거결과에 미칠 영향은 작아진다. 투표자가 증가할수록  $P_i$ 는 0에 가까워져  $P_i B$ 의 값은  $B$ 의 값에 상관없이 0에 가까워진다. 반면 비용인  $C_i$ 는 상수여서 투표자의 합리적 선택은 기권하는 것이다.

론모형을 통해  $P_i$ 의 도출과정을 제안하였으나 비용  $C_i$ 가 극히 작은 조건에서만 투표참여가 이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결국 모형을 통한 유권자의 투표참여 여부는 제한된 변수만을 가지는 방법의 특성상 정치적 과정에서 이탈하는 유권자와 참여하는 유권자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는 자료를 이용하는 실증문제로 넘어간다.

## 2. 거시연구

거시연구는 주로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분석하며 투표참여의 대리변수로 투표율을 사용한다. 주요한 거시연구로는 Rosenstone(1982), Radcliff(1992), Pacek(1994), 지병근(2006) 등이 있다. Rosenstone(1982)은 미국의 1896년부터 1980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유권자들의 재정악화와 국가의 실업률 및 물가변동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런 요인들의 악화가 투표율을 하락시킨다고 밝혔다.

Radcliff(1992)는 Rosenstone(1982)이 제시한 3가지 가설을 바탕으로 29개의 국가자료로 분석하였다. 그는 3가지 가설 중 대립되는 가설인 이탈가설과 동원가설의 차이가 국가의 복지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Radcliff(1992)는 복지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선진국(developed country)과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으로 나누었는데, 선진국의 경우 경기악화시 투표율은 하락하였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오히려 투표율이 증가하였다. 즉, 이러한 결과는 복지수준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선진국의 높은 복지수준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려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낮은 복지수준은 현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완화시키는 완충효과가 작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 밖에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와 달리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동유럽 국가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Pacek(1994)이 있는데,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동유럽 국가의 실업률과 투표율 간의 관계가 이탈가설을 지지한다고 한다. 이들과 달리 경기요인이 아닌 경제수준에서 조명한 연구는 지병근(2006)이 있다. 지병근(2006)은 70개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율 결정요인을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투표율은 증가한다고 주장하며 근대화이론을 지지한다.<sup>5)</sup> 즉, 소득수준

5) 근대화이론이란 경제발전이 유권자의 교육수준을 높여 정보수취 능력과 참여의식을 배양

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지며 그로 인해 낮아진 문맹률이 사회참여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이렇듯 거시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실업률, 물가상승 및 소득증가 등의 변수가 투표율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며 주로 경기상승 또는 경제상황의 호전이 투표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 주장한다.

### 3. 미시연구

거시연구의 경우 대체로 경기변동 또는 경제수준과 관련하여 연구되었으나 미시연구에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유권자집단의 경제상황과 투표참여 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다. 주요한 연구 가설들로는 사회경제적 현상(socioeconomic status)가설과 경제상태(state of economy)가설 등이 있다.

사회경제적 현상가설의 경우 Lazarsfel *et al.*(1944)가 미국의 1940년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교육, 소득, 거주지 및 사회계층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준다고 최초로 밝히며,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투표를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 각 변수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의 경우 사회적 계급을 측정하는 한 척도로 활용되며,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 간의 투표참여 차이는 정보처리비용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내세운 공약과 정치인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빠르다. 왜냐하면, 높은 교육수준이 정보처리비용을 낮추기 때문이다. 즉, 비용·편익 측면에서 볼 때 높은 교육수준은 투표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득의 경우 Evans(2004)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보다 대체로 적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을 한다. 그 이유는 사회적 관심보다는 개인적인 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그 밖에 거주지 및 사회계층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기본적인 설명변수로 놓고 각각의 독특한 설정을 배경으로 한 연구로는 Rosenstone(1982), Southwell(1988), Bhary and Lipsmeyer(2001), Arceneaux(2003) 등이 있다. 각각의 연구들은 각 핵심 주제에서 차이가 있지만 사회경제적 현상과 경제상태 가설을 기본적인 정치적 설명변수로 다루고 있다. 이들 가운데 Rosenstone(1982)은 미국의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상황과 투표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는데, 경제상황의 악화가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악화시켜 사회적 관심사인 투표참여보다는 개인적 관심사

함으로써 투표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인 개인의 경제생활에 집중한다고 하였다. Bhary and Lipsmeyer(2001)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개인적 관심사에 집중한다면 집단행동을 할 확률은 감소할 것이라 하고 집단행동의 예로 투표참여와 시위(protest)를 예로 들었는데, 투표참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소득이 낮은 집단과 실업상태인 집단이 투표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위의 경우 높은 참여확률을 보여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다.

Southwell(1988)은 Rosenstone(1982)의 연구를 기반으로 특정한 정치상황과 경제상황이 맞물릴 경우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는 이탈가설이 아닌 동원가설의 형태를 띤다고 주장한다. Southwell(1988)이 주장하는 동원가설의 정치·경제 상황은 선거 당시 집권당의 경제논리와 경제적 논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공화당 집권시 실업률이 사회적 논점일 경우 또는 민주당 집권시 물가상승이 사회적 논점일 경우이다.<sup>6)</sup> 그 이유는 당시 집권당과 사회적 논점이 일치하는 경우 교차압력(cross pressure)에 의해 유권자들은 집에 머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며, 반대의 경우 집권당의 경제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하여 투표하러 갈 유인이 있다고 한다.<sup>7)</sup> 이런 가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평소 투표율이 낮은 흑인 및 실업자와 노동계급 유권자들의 1978년과 1982년간의 투표참여 비교시 투표참여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가설과 같은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Arceneaux(2003)이 있다. Arceneaux(2003)는 투표참여에 관한 유권자의 이탈과 동원 행위가 유권자들의 정부비난태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권자 중 정부의 경제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은 이를 처벌하기 위해 투표하러 가는 반면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은 이탈한다는 것이다.

6) 일반적으로 공화당은 정부의 개입을 지양하는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고 민주당은 정부개입을 통한 복지증대를 중시한다. 만일 사회적 논점이 물가상승일 경우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는 공화당은 정부지출 등을 줄이는 정책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논점이 실업률일 경우 복지증대를 중시하는 민주당은 정부지출을 이용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선호한다. 이런 실업률과 물가상승의 관계는 필립스곡선(Philips curve)을 통해 입증되었다.

7) 교차압력이란 현재 집권당을 선호하나 집권당의 후보자를 선호하지 않아 상대당의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효용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차별한 상태를 말한다. 즉, 뽑을 사람이 없어서 기권하는 상태를 말한다.

### Ⅲ. 거시분석

#### 1. 자료 및 분석 방법

##### (1) 자료 및 변수설명

거시분석에 사용될 자료는 크게 정치변수와 경제변수로 나뉜다. 정치변수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관위 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1992년부터 2008년까지의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자료를 이용하며, 경제변수와 교육수준 등의 설명변수는 같은 기간에 작성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다. 자료는 16개의 시도 자료를 수집하여 불균형 패널자료(unbalanced panel data)로 구축하였으며, 가변수(dummy variable)를 제외하고는 각 변수들의 규모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변수들의 값을 모두 %단위로 변환하였다.<sup>8)</sup>

〈표 1〉은 거시자료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다. 우선 투표율의 경우 1992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국 평균투표율은 66.59%로 과거 평균투표율 71.51%에 비해 낮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19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4년제 대학 졸업자 비율로 평균 13.42%를 보이고 있다.<sup>9)</sup> 이는 유권자 10명 중 1.3명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실업률의 경우 평균 2.82%로 자연실업률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대도시의 높은 실업률과 지방도시의 낮은 실업률이 서로 상쇄되어 나타나는 효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기에 각 지역 간 서로 다른 실업률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표 2〉를 보면 각 연도별 투표율과 실업률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실업률이 낮을 때 투표율이 높고 실업률이 높을 때 투표율이 낮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로 실업률을 사용한다.<sup>10)</sup> 경제적

8) 불균형 패널의 구축이유는 울산, 대전과 같은 광역도시의 인정시기 때문이다. 또한 평균 투표율 변수로 인해 대전은 1996년부터 울산은 2002년부터 이용 가능하다.

9) 시·도 교육별 경제활동인구 중 19세 미만의 인구에게는 투표권이 없기에 15~19세 미만의 인구는 제외한다.

10) Radcliff(1992)는 경제상황변수로 1인당 소득(per capita income)변화량을 사용하였고, 지병근(2006)은 1인당 소득수준을 설명변수로 활용하나 한국 자료의 경우 선거시점에 일반적인 현상과 달리 1인당 소득변화량과 실업률이 같이 움직이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 설명변수로 활용하지 않는다.



〈표 1〉 거시자료 기초통계량 1992~2008년

(단위: %)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투표율	66.59	11.10	42.38	89.95
실업률	2.82	1.24	0.70	7.20
평균투표율 전체	71.51	7.16	58.13	87.16
대통령	80.83	5.10	71.47	90.79
국회의원	69.20	9.11	55.42	86.75
교육수준	13.42	5.89	4.16	29.4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정보시스템'; 통계청.

〈표 2〉 각 변수의 연도별 평균값

(단위: %)

선거일	투표율	실업률	평균투표율			교육수준
			전체	대통령	국회의원	
1992.03.24	73.32	2.60	83.87		81.88	8.85
1992.12.18	82.22	2.06	75.71			8.79
1996.04.11	65.63	2.18	77.60		75.71	10.99
1997.12.18	80.78	2.41	73.86	85.93		10.59
2000.04.13	58.83	4.79	73.21		69.37	12.73
2002.12.19	70.79	2.56	69.82	81.43		13.61
2004.04.15	60.32	3.46	64.82		62.23	16.06
2007.12.19	63.37	2.49	65.55	75.79		18.60
2008.04.09	47.19	2.79	61.84		59.58	19.05
평균	66.59	2.82	71.51	80.83	69.20	13.42

주: 음영부분은 국회의원선거를 나타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정보시스템'; 통계청.

상황변수로 실업률을 고려한 이유는 경기변동 과정에서 경기침체는 높은 실업률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실업률 사용의 시점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상이하게 설정하였는데,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시점의 실업률을 사용하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992년 14대 총선(1992년 3월 24일)을 제외하고는 선거 직전분기의 실업률을 이용한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가 4월 초에 개최되기에 선거가 개최되기 직전까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직전분기의 실업률

자료가 측정상의 오류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1)</sup> 정치적 설명변수로는 평균투표율, 교육수준, 새로운 유권자, 정권교체의 해 및 국회의원선거 등이 있다. 우선 평균투표율은 과거 투표율의 기대(expectation)값으로  $t-1$ 기와  $t-2$ 기의 이동평균(moving average)값이다.

이는 과거의 평균투표율이 투표변동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이다. 교육수준은 해당 지역의 교육수준이 투표율을 결정한다는 근대화이론의 설명변수로 실업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거가 있는 시점의 분기자료를 이용하였다. 새로운 유권자는 선거해 지역 유권자수 증가를 나타낸다. 유권자수의 증가는 새로이 투표권을 얻은 젊은 층의 유권자들로 정치적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투표참여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음으로 투표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때 유권자수의 증가는 해당 지역에 새로이 투표권을 부여받은 사람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로 인한 유권자수의 증가를 조정하기 위해 유권자수의 증가가 10% 이상이면 '1'의 값을, 그 이하이거나 감소할 경우에는 '0'의 값을 준 가변수를 활용하였다. 정권교체의 해는 1997년과 2007년에 있었던 정권 교체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정권교체가 있었던 연도에 '1'의 값을 준 가변수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선거변수는 국회의원선거를 대통령선거와 구별하고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추세(trend)를 조정하기 위한 변수로 국회의원선거에는 '1'의 값을 그리고 그 외 대통령선거에는 '0'의 값을 준 가변수이다.

## (2) 분석방법

분석방법의 경우 거시연구에서는 대체로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최소자승법(OLS)을 이용한다. 이때 패널자료의 경우 횡단면(cross-section)을 나타내는  $N$ 의 크기가 시계열을 나타내는  $t$ 보다 클 경우 일반적인 최소자승법모형을 사용하는데 있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각  $N$ 이 가지는 고유한 효과 때문인데, Radcliff(1992)는 각 국가가 가지는 고유한 선거제도와 상이한 선거시점을 고유한 효과로 보고 국가 가변수를 이용하였다. Radcliff(1992)가 이용한 모형은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 중 하나인 LSDV(least square with dummy variable)모형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한 국가 내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분

11) 반면 대통령선거의 경우 해당 분기 마지막 월에 선거가 개최됨으로 선거기간 직전까지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유권자들은 투표참여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석하기에 선거제도 차이와 상이한 선거시점에 의한 효과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패널구조의 특성을 살리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임의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이용한다. 거시분석을 위한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T_{i,t} = \alpha + X_{i,t}\beta_1 + \sum_{k=2}^K Z_{k,i,t}\beta_k + \varepsilon_{i,t},$$

$$i=1, 2, \dots, N, \quad t=1, \dots, T, \quad (2)$$

여기서  $i$ 는 지역을 나타내며  $t$ 는 선거시점을 나타낸다.  $T_{i,t}$ 는 투표율을 나타내며  $X_{i,t}$ 는 경제상황변수이다.  $Z_{k,i,t}$ 는 정치적 설명변수들이며  $\varepsilon_{i,t}$ 는 오차항(error term)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분석에 사용될 투표율은 기초통계량과 <표 2>에서 확인했듯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가진다. 이러한 감소 추세를 세대효과로 분석하는 연구들(정진민, 1992; 황아란, 1997; Wass, 2007)이 있으나 거시자료의 특성상 이를 고려하기 어렵기에 본 연구에서는 간단히 하향 추세를 제거하고 분석을 한다. 하향 추세를 제거하기 위해 우선 선거해 지역별 투표율인  $T_{i,t}$ 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T_{i,t} = T_{i,t}^P + T_{i,t}^T, \quad (3)$$

여기서  $T_{i,t}^P$ 는 선거해 지역별 투표율이 하향 추세하는 것을 나타내며  $T_{i,t}^P = a_0 + a_1 t_i$ 이라 놓는다. 이때  $t_i$ 는  $i$ 지역의 선거연도를 의미한다.  $T_{i,t}^T$ 는 일시적인 투표율의 변동을 나타내며  $\text{corr}(T_{i,t}^P, T_{i,t}^T) = 0$ 이라 가정한다. 이를 이용하여  $T_{i,t}^T$ 를 추정하면 식 (4)를 얻을 수 있다.

$$\hat{T}_{i,t}^T = T_{i,t} - \hat{a}_0 - \hat{a}_1 t_i. \quad (4)$$

식 (3)에서 추정된  $\hat{T}_{i,t}^T$ 을  $T_{i,t}$  대신 식 (2)에 넣고 모형을 다시 정리하면 투표율의 실질적 변동모형이 구성된다. 따라서 거시분석을 위한 최종모형은 식 (5)와 같다.

$$\hat{T}_{i,t}^T = \alpha + X_{i,t}\beta_1 + \sum_{k=2}^K Z_{k,i,t}\beta_k + \varepsilon_{i,t},$$

$$i=1, 2, \dots, N, \quad t=1, \dots, T. \quad (5)$$

식 (2)의 모형과 달리 식 (5)의 모형으로 분석시 각 설명변수들이 투표율 변

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알 수 있다.

## 2. 경기변동과 투표율 변동

〈표 3〉은 경기변동을 고려한 분석결과이다. 〈표 3〉에서 전체 추정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각각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sup>12)</sup> 분석결과 3가지 모형 모두 경제적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인 실업률이 투표율과 음(-)의 관계를 보이

〈표 3〉 경기변동과 투표율 변동모형

변수명	전체 추정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실업률	-0.852*** (0.328)	-0.043 (0.749)	-1.361*** (0.382)
평균투표율	0.079 (0.067)	0.226** (0.112)	-0.029 (0.087)
교육수준	-0.069 (0.086)	0.127 (0.122)	-0.145 (0.128)
새로운 유권자	-3.293*** (1.239)	-0.238 (1.128)	-3.317*** (1.257)
정권교체의 해	2.858*** (1.029)	1.340 (0.824)	
국회의원선거	-11.058*** (0.893)		
상수항	3.480 (5.524)	-20.784** (9.779)	8.937 (7.637)
R <sup>2</sup>	0.7685	0.2457	0.3275
관측치	137	45	73

주: 1) 모형 추정시 각 모형의 관측치가 다른 이유는 평균투표율변수로 인해 대통령선거는 1997년부터 15~17대의 선거자료가 이용되었으며, 국회의원선거는 1992년부터 14~18대 총선의 자료가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전체 추정의 경우 대통령선거의 자료를 1992년부터 이용할 수 있어 관측치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음.

2) ( )는 표준오차이며, \*\*\*는 1%, \*\*는 5%, \*는 10%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12)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관심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선거라 간주하기에 분리하여 연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적인 투표율을 다루며 지병근(2006) 역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및 통합 선거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나 전체 추정과 국회의원선거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평균투표율변수에 의해 상대적으로 시계열이 짧거나 대통령선거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sup>13)</sup> 실업률이 투표율 변동과 음(-)의 관계를 갖는 것은 경기침체가 투표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Rosenstone(1982)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은 개인의 재정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개인의 재정상황이 좋은 유권자의 경우 높은 사회적 관심을 보이는 반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유권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관심보다는 개인적 관심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경기침체는 유권자들의 재정적 상황을 악화시켜 정치과정에서 이탈하게 만들며 이는 투표율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 밖에 투표율 변동요인은 정치적 설명변수로 설명을 한다. 다른 선행연구와 달리 교육수준은 투표율에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유권자는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층의 요인으로 투표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정권교체 해의 경우 정권교체를 위해 투표인들이 동원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보처리 측면에서 대통령선거에 비해 국회의원선거의 비용이 높기 때문에 투표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 Arcelus and Meltzer (1975) 역시 그들의 연구에서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대통령선거보다 높음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대통령선거는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후보자를 파악할 기회가 높기 때문에, 정보처리 측면에서 대통령선거의 접근성이 높은 반면 비용은 낮기에 국회의원선거가 대통령선거보다 투표참여가 낮은 것이다.

본절에서의 잠정적 결과는 경기침체시 유권자들은 투표과정에서 이탈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우리가 가진 의문 중 ‘경제상황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으로 경기침체시 투표율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거시분석에서는 설명변수의 제한으로 Rosenstone(1982)이 말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유권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즉, ‘어떤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를 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투표참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은 다음 미시분석에서 자세히 다룬다.

13) 대통령선거의 경우 현 정권의 유지를 위해 정부지출을 인위적으로 늘려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경기변동(political business cycle)의 효과로 인해 경기변동과 투표율 변화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An and Kang(2000)은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도 정치경기변동이 존재함을 보였다.

## IV. 미시분석

### 1. 자료 및 분석 방법

#### (1) 자료 및 변수 설명

미시분석에는 ‘한국선거연구회’에서 조사하고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의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를 이용한다. 본 자료는 학술단체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조사하였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집하는 정치패널과 달리 각 연도의 동일한 설문항목이 1992년과 1997년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2002년도에는 이런 연속성의 질문들이 상당수 사라짐으로 인해 공통변수를 찾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02년 이후에는 설문내용의 통·폐합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져 일관적이며 동일한 항목을 확보할 수 있는 1992~2002년의 대통령선거 자료를 이용한다.<sup>14)</sup> 반면 본 자료는 각 연도 대통령선거 직후 면접방식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 유권자의 정치적 견해와 인구통계학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수집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거시분석에서 사용된 16개 시·도의 패널 구축과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연령대의 경우 최소 20세부터 92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연령대가 각 지역에서 골고루 분포되도록 조사되어 표본의 대표성을 잃지 않으려 하였다.

〈표 4〉는 각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다. 먼저 투표참여율을 보면 1992년 93.4%의 투표참여율을 기점으로 1997년에는 92.5%와 2002년에는 88.8%로 투표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거시자료와 비교시 각 연도의 실제투표율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투표참여율이 하락하는 추세는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미시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은 설문지의 내용을 분석하기 용이하게 새롭게 가공하였다.<sup>15)</sup> 변수들 중 경제상태를 나

14) Lee(2004)의 경우 일반모형 분석을 위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본문에서 언급하였듯이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일관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분석에는 활용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최근의 선거였던 2008년 국회의원선거 자료까지 이용가능하나 1992년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직업분류값의 이름을 알 수 없어 분석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후 선거인 1996년 15대 국회의원선거 자료는 ‘사회과학데이터센터’도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용가능한 국회의원선거 자료 중 대통령선거와 비슷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16대 국회의원선거 뿐임으로 분석에서 제외한다.

타내는 변수는 직업군과 빈곤이다. 빈곤의 경우 유권자의 생활수준을 묻는 질문 중 “아주 어렵다”에 답한 사람들로 생활수준이 어려운 주관적 빈곤층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빈곤은 경기침체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사람들로 만일 이들이 투표참여에 양(+)<sup>16)</sup>의 행동을 보인다면 동원가설을, 음(-)의 행동을 보인다면 이탈가설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6)</sup>

사회계급(social class)을 나타내는 변수는 직업군을 대리변수로 활용한다. 직업군은 총 8개로 실업자, 학생, 공무원, 전문가, 서비스직, 사무직, 생산직 종사자 및 퇴직자로 구분한다.<sup>17)</sup> 직업군을 이렇게 세분화 한 이유는 각각의 직업군이 가지는 특성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선거 당일은 임시휴일이다. 그러나 직업의 특성상 휴일에 관계 없이 일을 하는 계층이 존재한다. 이는 서비스업 종사자이다. 이들의 예상되는 투표참여 행태는 음(-)의 방향으로 소득의 기회비용 측면을 고려할 경우 투표하러 가는 비용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

15) 선거관련 질문 및 변수값

① 선생님께서 이번 선거에 투표하셨습니까? (투표참여)	1=투표했다. 0=투표하지 않았다.
② 1분 정도의 TV 광고 시청? (TV 광고)	1=보았다. 2=보지 않았다.
③ 선생님의 생활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빈곤)	1=아주 어렵다. 0=나머지
④ 선생님의 연세는? (나이)	
⑤ 선생님의 교육 정도는? (교육수준)	1=초등학교 이하 2=중졸 이하 3=고졸 이하 4=대졸 이상
⑥ 선생님의 직업은? (직업군)	
⑦ 조사지역 (거주지)	1=군지역 2=중소도시 3=대도시

16) 보다 객관적 지표인 소득을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소득이 투표율의 명확한 함수인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본 자료에서의 소득조사는 구간조사로 되어 있으며 조사연도별로 구간의 설정이 상이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조사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개인의 투표행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직접적 변수로 다루지 않는다. 다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소득구간의 중간 값을 채택한 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이용해 실질변수로 만들어 이를 다시 분위별로 나눈 값을 이용할 수 있다. 본 방법을 이용한 결과는 0.004(표준오차: 0.0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가구소득과 투표참여 간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부표 1〉 참조). 이는 좀더 정교한 방법론적 논의와 수행이 있으면 그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임으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17) 직업군 중 실업자와 학생의 경우 나이변수를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실제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실업자는 상당 부분 퇴직자를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 연령을 기준으로 60세 미만은 실업자로, 60세 이상은 퇴직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학생의 경우 30세까지를 학생으로 구분하고 그 이상은 기타로 처리하였다. 기타 직군에는 주부, 군인, 종교인, 예능 및 예술인, 농어민 등을 포함한다.

〈표 4〉 미시자료 기초통계량 1992~2002년

변수명	전체		1992		1997		200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투표참여	0.914	(0.280)	0.934	(0.248)	0.925	(0.264)	0.888	(0.316)
빈곤 <sup>1)</sup>	0.032	(0.177)	0.042	(0.200)	0.023	(0.150)	—	—
실업자	0.032	(0.175)	0.043	(0.202)	0.018	(0.132)	0.034	(0.182)
학생	0.092	(0.290)	0.061	(0.239)	0.097	(0.297)	0.115	(0.320)
공무원	0.030	(0.171)	0.034	(0.182)	0.038	(0.192)	0.020	(0.139)
전문가	0.038	(0.191)	0.008	(0.091)	0.026	(0.160)	0.074	(0.262)
서비스직	0.215	(0.411)	0.162	(0.368)	0.277	(0.448)	0.209	(0.407)
사무직	0.125	(0.330)	0.124	(0.330)	0.098	(0.298)	0.147	(0.355)
생산직	0.058	(0.234)	0.081	(0.273)	0.048	(0.215)	0.047	(0.212)
퇴직자	0.052	(0.222)	0.076	(0.265)	0.032	(0.177)	0.049	(0.215)
TV 광고	0.758	(0.428)	0.712	(0.453)	0.865	(0.342)	0.707	(0.455)
나이	40.820	(14.378)	41.280	(14.886)	40.026	(13.823)	41.100	(14.375)
교육수준	2.980	(1.003)	2.703	(1.066)	3.072	(0.980)	3.142	(0.911)
거주지역	2.335	(0.736)	2.258	(0.816)	2.353	(0.720)	2.386	(0.668)
성별	0.499	(0.500)	0.485	(0.500)	0.508	(0.500)	0.505	(0.500)
관측치	3,758		1,200		1,180		1,378	

주: 1) 전체 평균에서 빈곤변수는 1992년과 1997년 평균값.

2) (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자료: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1992~2002년.

으로 높다. 전문직의 경우(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판사, 검사, 대학교수, 연구원 등) 높은 교육수준과 정책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투표참여에 양의 값을 예상한다. 공무원의 경우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직업환경이 바뀌므로 이들 집단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투표할 유인이 높다. 앞서 설명한 변수들과 달리 사무직 종사자와 생산직 종사자는 휴일을 이용한 여가와 투표시 얻게 되는 효용 사이에 더 높은 쪽을 선택할 것임으로 그 방향을 예상하기 어렵다. 학생집단은 교육수준과 관련이 높음으로 양의 방향이 예상되나 이들 집단이 청년층임을 감안할 때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정치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음의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퇴직자의 경우 이미 은퇴를 하였기에 연금의 대폭적 삭감 등과 같은 정책이 아닌 이



상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어도 무차별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과정에서 이탈하는 음의 행태가 예상된다.

그 밖의 조정변수들(control variables)은 나이, 교육수준, 거주지, 성별 및 TV 광고가 있다. 이 중 TV 광고는 정보처리 측면과 관련된 변수이며 후보자들의 TV 1분 광고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으나 거시분석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던 정보처리 측면을 다룬다. 즉, 선거기간 동안 정보노출의 양이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변수이다.<sup>18)</sup> 나이는 생애주기이론(life cycle theory)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애주기이론이란 투표참여의 형태가 나이를 따라 곡선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즉, 초기에는 투표참여가 저조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다 정점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최초의 정치적 참여가 경험부족으로 인해 저조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습관화되어 지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생애주기이론은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많이 동떨어져 있으므로 이는 부록을 통해 소개한다.<sup>19)</sup>

## (2) 분석방법

거시연구와 달리 미시연구에서의 주요한 방법론은 프로빗(probit)모형을 이용한다. 본고에서도 프로빗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분석한다. 프로빗모형을 이용하는 이유는 변수들이 이분적인(binary variable) 자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시분석에 사용될 기본모형은 식 (6)과 같다.

$$y_i^* = \alpha + x_{i,1}\beta_1 + \sum_{k=2}^K z_{i,k}\beta_k + T\beta_{K+1} + \varepsilon_i, \quad i=1, 2, \dots, N, \quad (6)$$

여기서  $y_i^*$ 는 유권자  $i$ 가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며, 거시모형과 동일하게  $x_i$ 는 유권자의 경제상황변수이고,  $z_{i,k}$ 는 정치적 설명변수이다.  $T$ 는 해당연도에 '1'의 값을 준 가변수벡터이며,  $\varepsilon_i$ 는 거시모형과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가정한 오차항이다. 미시모형은 거시모형과 달리  $y_i^*$ 를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프로빗모형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L = \prod_{i=1}^n \Phi(\cdot)^{y_i} [1 - \Phi(\cdot)]^{1-y_i}, \quad (7)$$

18) 그 밖에 TV 토론이나 TV 연설 및 신문광고가 있으나 후보자의 결정요인이 아닌 전체 투표율의 결정요인이 분석 목적임으로 제외한다.

19) 나이의 경우 다른 직업군들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다른 변수들의 유의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직업군 분석시 나이는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Phi(\cdot) = \Phi\left(\alpha + x_{i,1}\beta_1 + \sum_{k=2}^K z_{i,k}\beta_k + T\beta_{K+1}\right)$ 이며  $y_i$ 는 유권자  $i$ 의 투표참여를 나타내며 만일 투표에 참여했다면  $y_i=1$ 이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y_i=0$ 이다. 즉, 식 (7)을 이용하여 각 변수들이 투표참여 결정요인에 미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추정한다.

## 2. 실업과 투표참여

### (1) 실업과 투표참여

<표 5>는 직업군을 이용한 1992년부터 2002년까지의 전체 추정과 연도별 추정의 결과이다. 우선 연도별 추정의 경우 각 연도의 논점과 사회적 분위기 등이 반영되어 각 변수의 값들이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이런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유의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겠으나 각 연도의 설문 내용 차이에 의해 어려움을 갖는다. 반면 전체 추정은 각 연도별로 가지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떤 유권자들이 투표과정에서 이탈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체 추정에서는 각 연도별 공통으로 관측 가능한 변수의 제한으로 사회적 위치에 관한 분석만이 가능하다.

전체 추정에서 나이를 포함한 추정결과 실업자와 서비스직 종사자 및 퇴직자만이 유의한 값을 보이며 음(-)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sup>20)</sup>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휴일에 관계 없이 일을 하는 직업군으로 투표참여 결정시 소득의 기회비용이 투표참여로 인한 편익보다 높아 투표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퇴직자의 경우 이들은 이미 은퇴를 하였기에 후보자들의 정책은 이들에게 무차별하다. 따라서 투표참여시 드는 비용보다 큰 이익이 없는 한 이들은 투표과정에서 이탈한다.

실업자의 경우 여러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실업자가 투표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들의 경우 다른 직업군과 달리 직업탐색을 위한 탐색비용(search cost)이 효용함수에 고려되기 때문이다. 이때 투표참여를 위한 정보처리비용이 다른 유권자들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실업자들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투표참여에 드는 비용이 높아 투표참여를 하지 않는다. 즉, 구직활동을 위한 탐색비용에 투표참여를 위한 정보탐색비용이 더해져 투표참여시

20) 나이를 제외할 경우 이들 변수들의 유의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변수를 설정할 때 나이로 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직업군과 투표참여모형

변수명	전체		1992년		1997년		2002년	
	I	II	I	II	I	II	I	II
실업자	-0.050* (0.032)	-0.089*** (0.038)	-0.068* (0.053)	-0.075* (0.054)	-0.007 (0.048)	-0.024 (0.062)	-0.064 (0.060)	-0.152*** (0.073)
학생	-0.009 (0.018)	-0.068*** (0.023)	-0.141*** (0.064)	-0.162*** (0.064)	0.025 (0.017)	-0.023 (0.029)	0.032 (0.027)	-0.059* (0.038)
공무원	0.012 (0.026)	0.004 (0.030)	-0.007 (0.054)	-0.006 (0.054)	0.033 (0.020)	0.030 (0.027)	0.025 (0.054)	-0.004 (0.070)
전문가	-0.004 (0.024)	-0.015 (0.027)	-0.118 (0.141)	-0.123 (0.143)	0.016 (0.034)	0.028 (0.032)	0.012 (0.033)	-0.019 (0.040)
서비스직	-0.037*** (0.015)	-0.048*** (0.015)	-0.122*** (0.035)	-0.124*** (0.035)	0.011 (0.016)	0.003 (0.019)	-0.024 (0.027)	-0.047* (0.029)
사무직	-0.020 (0.017)	-0.041** (0.020)	-0.037 (0.035)	-0.042 (0.035)	0.021 (0.018)	0.008 (0.024)	-0.035 (0.033)	-0.083** (0.038)
생산직	-0.005 (0.022)	-0.026 (0.026)	-0.014 (0.035)	-0.021 (0.037)	0.007 (0.031)	-0.016 (0.042)	-0.031 (0.050)	-0.063 (0.058)
퇴직자	-0.077** (0.039)	-0.005 (0.024)	-0.012 (0.038)	0.003 (0.029)	-0.148** (0.100)	-0.015 (0.050)	-0.093 (0.073)	0.001 (0.046)
TV 광고	0.066*** (0.012)	0.067*** (0.013)	0.023 (0.016)	0.024 (0.016)	0.120*** (0.032)	0.125*** (0.033)	0.077*** (0.021)	0.076*** (0.021)
나이	0.003*** (0.000)		0.001 (0.001)		0.004*** (0.001)		0.004*** (0.001)	
교육수준	0.003 (0.006)	-0.014** (0.006)	0.011 (0.009)	0.007 (0.008)	-0.012 (0.010)	-0.033*** (0.009)	0.005 (0.012)	-0.018 (0.011)
거주지역	-0.007 (0.006)	-0.004 (0.006)	-0.011 (0.009)	-0.010 (0.009)	0.006 (0.010)	0.012 (0.010)	-0.013 (0.013)	-0.009 (0.013)
성별	0.015 (0.009)	0.024** (0.009)	0.024 (0.015)	0.026* (0.015)	-0.007 (0.014)	0.002 (0.015)	0.031* (0.018)	0.046** (0.018)
1997년 선거	-0.016 (0.012)	-0.012 (0.012)						
2002년 선거	-0.043*** (0.012)	-0.034*** (0.012)						
Pseudo R <sup>2</sup>	0.0591	0.0416	0.0663	0.0645	0.0998	0.0588	0.0606	0.0360
관측치	3,758		1,200		1,180		1,378	

주: ( )는 표준오차이며, \*\*\*는 1%, \*\*는 5%, \*는 10%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직업이 있는 유권자에 비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실업자들이 투표참여 과정에서 이탈하는 다른 측면으로는 순편익(net benefit) 간 선택문제로 고려된다. 우선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확률이 구직활동을 통해 직업을 찾을 확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실업에 처한 유권자는 구직활동을 위한 직업탐색비용과 투표참여를 위한 정보탐색비용의 사이에서 더 낮은 비용과 높은 효용을 주는 선택을 할 것이다. 이때 실업자들이 이탈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구직활동에 더 큰 효용을 느끼기 때문이다. 만일 구직활동을 위한 탐색비용과 투표참여를 위한 정보탐색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도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통한 혜택은 시간 선호에 따른 시간 선호할인에 의해 미래의 편익이 할인되어 구직활동을 통해 얻는 효용보다 낮을 것이다.

## (2) 정보처리 비용 및 습관적 투표

사회적 위치에 기반을 둔 유권자들의 설명 외에 사회적 요인변수들 중 TV 광고는 비용 측면의 감소로 해석된다. 각 후보자의 1분 광고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알기 위한 탐색비용을 줄여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상대적 비용의 감소는 편익의 증가를 가져와 유권자들이 투표과정에 참여할 유인을 증가시킨다. 나이는 생애주기이론 및 습관적 투표행태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부표 1>을 보면 나이<sup>2</sup>의 경우 음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청년기에는 투표참여가 저조하다가 점차 증가하여 정점을 기점으로 노년기에 다시 감소하는 모양을 뜻한다. 청년기의 유권자들은 정치참여의 경험부족으로 정치과정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적 학습효과에 의해 당 이념에 기초하여 후보자를 판단하는 능력이 생긴다. 대체로 후보자들은 자신이 속한 당의 이념을 기반으로 공약을 내놓기에 투표과정을 경험한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기대보다는 당 이념에 대한 기대에 의해 투표를 한다. 또한 이미 당 이념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해 정보를 처리하는 비용이 낮아진 상태임으로 나이가 들수록 투표과정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진다.

## 3. 빈곤과 투표참여

<표 6>은 앞서 분석한 실업과 달리 주관적 빈곤의 투표참여를 분석한다. 추경결과 전체 추정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제위기가 있었던 1997

〈표 6〉 빈곤과 투표참여모형

변수명	전체	1992	1997
빈곤	-0.035 (0.036)	0.005 (0.034)	-0.113** (0.078)
TV 광고	0.062*** (0.016)	0.028* (0.017)	0.119*** (0.032)
나이	0.002*** (0.000)	0.001** (0.001)	0.003*** (0.001)
교육수준	0.002 (0.007)	0.010 (0.009)	-0.010 (0.009)
거주지역	-0.008 (0.007)	-0.016* (0.009)	0.004 (0.010)
성별	0.004 (0.010)	0.013 (0.014)	-0.002 (0.013)
1997년 선거	-0.014 (0.010)		
Pseudo R <sup>2</sup>	0.0409	0.0187	0.0943
관측치	2,380	1,200	1,180

주: ( )는 표준오차이며, \*\*\*는 1%, \*\*는 5%, \*는 10%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년에 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주관적 빈곤을 나타내는 변수인 빈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투표과정에서 이탈하는 것을 대변한다. 주관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소득이 낮거나 또는 부채가 많아서일 가능성이 높다. 소득이 낮을 경우 한 단위 소득은 한 단위 소비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부유한 사람보다 한 단위 소비를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용의 상대적 크기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부채가 많을 경우 높은 이자율은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 부유한 사람에 비해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소비감소로 인한 효용의 한계체감이 훨씬 높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원을 투표참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V. 실업과 빈곤의 상관관계

앞서 분석한 거시분석을 통해 경기침체시 투표율은 하락한다는 사실과 미시

〈표 7〉 직업군과 빈곤의 상관관계

	실업자	학생	공무원	전문가	서비스직	사무직	생산직	퇴직자
빈곤	0.079***	-0.054***	-0.023	-0.024	0.018	-0.042**	0.000	0.093***

주: \*\*\*는 1%, \*\*는 5%, \*는 10%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분석을 통해 실업자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투표과정에서 이탈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실업과 빈곤의 상관관계에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였으며 거시상황과 미시상황의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본절에서는 이런 한계점을 중점으로 논의한다. 우선 〈표 7〉은 직업군과 빈곤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분석결과 실업자와 퇴직자가 빈곤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즉, 실업자와 퇴직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답하여 이들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빈곤과 실업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안중범·김철희·전승훈(2002)은 한국 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는데, 실업에 처한 사람일수록 빈곤에 처하기 쉽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빈곤의 원인으로 실업을 꼽고 있다. 우리는 거시분석에서 경기변동의 대리변수로 실업률을 사용하였는데 미시분석 결과 실업자들이 투표과정에서 이탈한다는 결과를 얻어 실업률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하락한다는 거시분석과 같은 맥락에 있다. 결국 안중범 외(2002)가 지적한 대로 실업에 처한 사람이 빈곤에 처하기 쉽다면 경기침체시 경제적 어려움이나 재정적 악화를 겪는 사람들은 실업상태에 놓이는 사람들이며, 이들 집단은 소득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가계의 재정악화로 사회적 관심인 투표과정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우리는 위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직업군 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는지 확인한다. 분석방법은 모든 요소들을 고정하여 비교하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한다. 성향점수매칭은 빈곤하다고 답한 사람들과 가장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추려 내어 경제적 어려움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성향점수 추정을 위한 모형은 종속변수로 빈곤변수를 놓고 직업군을 설명변수로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P_r(p_i=1|X_i, T)=\Phi(\beta X_i+T)\equiv\Phi_i, \quad (8)$$

여기서  $P_r$ 은 확률함수이며 만일 빈곤이면  $p_i=1$ 이고 아니면  $p_i=0$ 의 값을 가진다.  $X_i$ 는 투표참여모형에서 TV 광고를 제외하고 나이<sup>2</sup>를 넣은 개인의 특성 벡터이며  $T$ 는 연도구분을 위해 사용된 연도 가변수이다. 〈부표〉를 보면 식 (8)

의 성향점수 추정과정 중 실업자, 서비스직 및 퇴직자들이 빈곤하다고 답할 확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곤하지 않으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빈곤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본절에서 분석한 성향점수 추정과정의 결과 중 실업자일수록 빈곤하다는 결과는 안중범 외(2002)의 분석과 일관성을 가진다. 즉, 실업은 빈곤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다음은 식 (8)을 통해 추정된 성향점수를 식 (9)를 이용하여 빈곤집단과 가장 비슷한 비교집단을 선정한다.<sup>21)</sup>

$$C_i = \min_j \|\hat{\Phi}_i - \hat{\Phi}_j\|, \quad i \neq j. \quad (9)$$

식 (9)는 빈곤집단의 유권자  $i$ 의 성향점수 거리와 가장 근접한 비교집단의 유권자  $j$ 를 추려 내는 과정이다. 이런 최소화 과정은 거쳐 빈곤집단과 비슷한 성향점수를 가진 비교집단을 선정한 후 식 (10)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여부를 비교한다. 만일 두 집단의 비교결과가 유의하지 않다면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이고 만일 유의하다면 두 집단의 차이는 있다고 본다.

$$\tau = \frac{\sum_{i \in T} Y_i^T}{N^T} - \frac{\sum_{j \in C} w_j Y_j^C}{N^T}, \quad (10)$$

여기서  $T$ 는 빈곤집단,  $C$ 는 비교집단,  $Y$ 는 투표참여 여부를 각각 나타낸다.  $w_j$ 는 가중치로  $w_j = \sum_i w_{ij}$ 이며  $w_{ij} = 1/N_i^C$ 이다. 이때  $w_{ij}$ 와 같이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T$ 집단과  $C$ 집단의 표본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집단의 크기를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함이다.

〈표 8〉은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결과이다. 전체 추정의 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위기가 있었던 1997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단의 투표참여가 약 14% 정도 낮게 나타났다. 즉, 경제침체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 또는 재정적 어려움을 동반하여 투표과정에서 이탈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처리 측면에서 보았을 경우 주로 빈곤하다고 답한 계층의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9〉 참조). 즉, 이들 집단의 낮은 교육수준은 정보처리비용을 높여 투표참여 과정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1) 성향점수 선정방법에는 비교방법에 따라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접매칭(nearest neighbor matching)을 이용한다. 매칭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Lee(2005)를 참조하라.

〈표 8〉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

	빈곤집단	비교집단	평균값 차이	t-통계량
투표참여	77	109	0.009 (0.046)	0.189
투표참여(1992년)	50	72	-0.000 (0.049)	-0.010
투표참여(1997년)	27	39	-0.141* (0.075)	-1.866

주: \*\*\*는 1%, \*\*는 5%, \*는 10%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표 9〉 직업군 및 빈곤의 평균교육수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실업자	2.916	(0.971)	1	4
학생	3.807	(0.395)	3	4
공무원	3.389	(0.700)	1	4
전문가	3.839	(0.405)	2	4
서비스직	2.937	(0.851)	1	4
사무직	3.573	(0.590)	1	4
생산직	2.648	(0.801)	1	4
퇴직자	1.740	(1.002)	1	4
기타 직군	2.699	(1.054)	1	4
직업군 전체	2.980	(1.003)	1	4
빈곤=1	2.013	(1.082)	1	4
=0	2.915	(1.027)	1	4

주: 직업군의 평균교육수준에 대한 일원분석 결과 F-통계량이 159.57로 1% 유의수준을 보였으며 빈곤에 대한 t 검정결과 t-통계량이 7.568로 1% 유의수준을 보임.

## VI. 결 론

경제적 상황은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 많은 관여를 한다. 정치행위 역시 이러한 범주 안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정치행위의 가장 기본적 행동인 투표 역시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거시자료와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어



떤 상황일 때 어떤 유권자들이 투표참여를 하지 않으며 왜 투표참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거시분석 결과 투표율은 경기순행적 관계를 가진다. 즉, 경제상황이 좋을 경우 투표율은 증가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 투표율이 하락하는 이탈가설을 지지한다.

둘째, 미시분석 결과 실업상태에 있는 유권자와 빈곤상태에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과정에서 이탈한다. 이러한 결과는 누군가를 내세워 경제적 이익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효용을 빠른 시간에 높일 수 있는 개인적 관심사에 높은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즉, 거시분석과 미시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경기침체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유권자들이 정치적 과정에서 이탈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정치경제이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치경제이론에서 투표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도구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한다는 가정을 두지만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권자들이 투표과정에서 이탈한다면 그들을 대표하는 후보자는 당선될 확률이 낮아진다. 즉,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단의 후보자가 그렇지 않은 집단의 후보자보다 당선될 확률이 높아져 결국 당선인들이 추구하는 경제정책은 한쪽 집단으로 편향된 정책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에 본 연구와 같이 투표참여 과정에서 이탈하는 유권자를 찾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본 연구는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유권자들, 특히 실업상태에 있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하였으나 자료의 한계상 실업상태의 장·단기 및 절대 빈곤상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결정 등은 분석하지 못하였다. 절대 빈곤의 경우 소득수준의 자료가 이산적이지 않고 연속적인 자료일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투표행태 역시 분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향후 정치패널과 같은 장기적 자료가 구축된다면 연도별 추정에 따른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좀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원택, “지역주의 투표와 합리적 선택: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00, 51~67.

- \_\_\_\_\_, “투표 불참과 정치적 불만족,”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02, 153~174.
- 박상훈,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제16대 총선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01, 113~134.
- 안중범·김철희·전승훈, “빈곤과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5집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2002, 75~95.
- 양창윤, “지역 정치문화와 선거,”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한국정치학회, 2001, 173~196.
- 정진민, “한국선거에서의 세대요인,”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1호, 한국정치학회, 1992, 145~167.
- 정진민·황아린,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정치: 세대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1999, 115~134.
- 지병근,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투표율에 미친 영향: 신생민주체제에 대한 교차국가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2집 제2호, 비교민주주의학회, 2006, 5~32.
- 최영진, “제16대 총선과 한국 지역주의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1호, 한국정치학회, 2001, 149~165.
- 황아란,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4호, 한국정치학회, 1997, 285~298.
- An, Chong Bum and Seoghoon Kang, “Government expenditure and Political Business Cycle,”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 16, No. 2, 2000, 193~206.
- Arcelus, Francisco and Allan H. Meltzer, “The Effect of Aggregate Economic Variable on Congressional Electi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9, No. 4, 1975, 1232~1239.
- Arceneaux, Kevin, “The Conditional Impact of Blame Attribu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Adversity and Turnout,”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56, No. 1, 2003, 67~75.
- Bahry, Donna and Christine Lipsmeyer, “Economic Adversity and Public Mobilization in Russia,” *Electoral Studies* 20, 2001, 371~398.
- Davis, Otto A., Melvin J. Hinich, and Peter C. Oredeshook, “An Expository Development of a Mathematical Model of the Electoral Process,” *The*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4, No. 2, 1970, 426~448.
- Evans, Jocelyn A. J., *Voters & Voting: an introduction*, Sage Publication, 2004.
- Feddersen, Timothy J., "Rational Choice Theory and the Paradox of Not Voting,"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8, No. 1, 2004, 99~112.
- Ferejohn, John A. and Morris P. Fiorina, "The Paradox of Not Voting: A Decision Theoretic Analy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8, No. 2, 1974, 525~536.
- Lee, Junhan, "Who Votes and Why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 16, No. 2, 2004, 183~198.
- Lee, Myoung-Jae, *Micro-Econometrics for Policy, Program, and Treatment Effects*, Springer, 2005.
- Lazarsfeld, P., B. Berelson, and H. Gaudet,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44.
- Pacek, Alexander C., "Macroeconomic Conditions and Electoral Politics in East Central Europ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8, No. 3, 1994, 723~744.
- Radcliff, Benjamin, "The Welfare State, Turnout, and the Economy: A Comparative Analy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6, No. 2, 1992, 444~454.
- Riker, William H. and Peter C. Ordeshook,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2, No. 1, 1968, 25~42.
- Rosenstone, Steven J., "Economic Adversity and Voter Turnou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6, No. 1, 1982, 25~46.
- Southwell, Priscilla L., "The Mobilization Hypothesis and Voter Turnout in Congressional Elections, 1974-1982,"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41, No. 2, 1988, 273~287.
- Wass, Hanna, "The Effects of Age, Generation and Period on Turnout in Finland 1975-2003," *Electoral Studies* 26, 2007, 648~659.

64 실업, 빈곤과 투표행태

〈부표〉 성향점수 추정 및 생애주기모형

변수명	성향점수 추정 (종속변수=빈곤)	가구소득과 투표행태	생애주기모형
실업자	0.095*** (0.042)		-0.040 (0.031)
학생			0.015 (0.016)
공무원	-0.004 (0.016)		0.011 (0.026)
전문가			0.000 (0.023)
서비스직	0.021** (0.010)		-0.039*** (0.015)
사무직	0.005 (0.014)		-0.016 (0.017)
생산직	0.007 (0.014)		-0.007 (0.023)
퇴직자	0.058*** (0.032)		-0.018 (0.031)
가구소득 분위수/10		0.004 (0.017)	
TV 광고		0.068*** (0.013)	0.064*** (0.012)
나이	0.002* (0.001)	0.003*** (0.000)	0.010*** (0.002)
나이 <sup>2</sup> /100	-0.003** (0.001)		-0.008*** (0.002)
교육수준	-0.013*** (0.003)	0.004 (0.006)	0.001 (0.006)
거주지역	-0.009** (0.004)	-0.009 (0.006)	-0.008 (0.006)
성별	-0.002 (0.006)	0.011 (0.009)	0.014 (0.009)
1997년 선거	-0.007 (0.006)	-0.017 (0.013)	-0.016 (0.012)
2002년 선거		-0.045*** (0.012)	-0.045*** (0.012)
Pseudo R <sup>2</sup>	0.1191	0.0524	0.0648
관측치	2,380	3,758	3,758

주: 1) ( )는 표준오차이며, \*\*\*는 1%, \*\*는 5%, \*는 10%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2) 성향점수추정모형에서 학생(188명)과 전문가(41명) 집단이 모두 '0'의 값을 가짐으로 분석모형에서 제외함.

[Abstract]

## Unemployment, Poverty and the Voting Behavior

Minseong Kim\* · Sangheon Lee\*\*

A typical theory of political economy makes an unrealistic assumption that all voters participate in voting. While this may be a simplifying assumption, it is not innocuous. Actual participation in voting may bias the representation of various interests of the constituents. We examine the association of voting behavior with economic shocks at both macro and micro levels using recent national elections in Korea. The macro data shows that an adverse economic shock lowers voter participation. The evidence from the micro data is that the unemployed individuals are less likely to vote than the employed ones. The evidences are consistent with the so-called “withdrawal” view.

**Keywords:** unemployment, poverty, business cycle, withdrawal hypothesis, voting behavior

**JEL Classification:** D72, D78

---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Tel: +82-2-760-0621, E-mail: minseong@skku.edu

\*\* Second author, Researcher, Microeconomics Studies Team, Institute for Monetary and Economic Research, , Tel: +82-2-759-5558, E-mail: stoll80@skku.edu